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SUNG KYUNKWAN UNIVERSITY	보 도 자 료	
	담당	
	참조	
	참조	

[자료문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김수마로 (02-760-0788, 010-7550-2088)

“유가윤리와 현대사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소장 신정근)는 대만사범대학 동아시아문화·한학연구센터(臺灣師範大學 東亞文化與漢學研究中心)와 공동 주최로 <유가윤리와 현대사회>라는 주제 아래 10월 8일(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유교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이고 윤리이다. 유교는 과거의 유산으로 머물지 않고 여전히 현대 동아시아인들의 윤리와 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상생활과 제례 등에서 유교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논어』 등 유교 고전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현대중국에서도 공자의 부활, 유교의 경전에 대한 암송대회가 열리고, 유교를 종교화하려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유교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학술회의는 21세기의 동아시아학을 위한 인권유학(人權儒學)의 방향, 전통시대 유학의 현대적 적용,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유학적 해법, 현대신유가의 환경윤리, 새로 발견된 출토자료에 근거한 유교 재해석, 현대 중국지식인의 유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학술회의는 대만과 한국에서 중국문학과 동아시아 철학 두 분야에서 유학연구를 지속해온 여섯 명의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유가윤리와 현대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신정근 교수는 「‘인권유학(人權儒學)’, 21세기 동아시아학의 미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신교수는 21세기의 유학이 인문(인권)을 매개로 동아시아학과 결합되어야 일국(一國)을 벗어나 동아시아를 공동의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럴 때 21세기에 유학은 인문(인권)유학이 되고 동아시아학

은 지역학을 넘어 인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대만사범대학 동아시아학과 판차오양(潘朝陽) 교수는 「현대 신유가 탕권이(唐君毅)의 환경 생태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판교수는 현대의 대표적 신유학자의 탕권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천인합일, 만물일체라는 유가의 생명관을 통해 현대 환경문제와 생태위기를 검토하려고 한다.

중문학자 진페이이(金培懿) 교수는 「유가 ‘생사유정(生死有定)’의 선악(善惡) 윤리와 화복(禍福)의 의미분석-필기소설 ‘천재인화(天災人禍)’형 이야기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진교수는 인간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생사화복에 대한 문제를 중국 전통시대 필기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연의 재해와 인간의 불운이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문학자 리싱링(李幸玲) 교수의 「공자의 시중(時中)관에 대한 재해석-상하이 박물관 죽간 『시론(詩論)』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리교수는 중국에서 발굴된 새로운 출토문헌을 보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박물관 소장 죽간본 『시론(詩論)』을 통해 공자와 유가의 핵심사상인 시중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성균관대학교 김도일 교수는 「맹자에서의 세 가지 도덕적 확장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김교수는 맹자의 확충개념을 통해 측은지심과 같은 윤리적 동기에 기초한 행위를 보다 많은 대상으로 넓혀가는 윤리적 확충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혈연적인 사랑에서 가족주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윤리영역의 확충이 유가윤리가 가족주의를 넘어서 보편적인 윤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한림대학교 송인재 교수는 「유학과 21세기 중국의 제도창신」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송교수는 현대 중국에서 유학의 부흥이 갖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유학이 제도와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도유학 또는 정치유학이 유학의 새로움, 새로운 정치, 더 나아가 새로운 중국과 세계를 모색하는 중국 지식인의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국제학술회의는 전통시대와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유학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현대사회 속에서 유학의 윤리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풍성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사회의 여러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삶의 현실과 윤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0월 8일 (목) 13:0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별첨

1. 2015년 춘계 학술회의 일정표
2. 발표논문 요약문 (발표)

▣ 등 록 12:30~13:00

▣ 개회식 13:00~13:20

사 회: 임종수 (유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개회사: 신정근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축 사: 진재교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13:20~13:50 ○ 당대 신유가 唐君毅의 환경생태사상

—발표: 潘朝陽(臺灣師範大學)

13:50~14:20 ○ 공자의 時中觀 해석에 대한 反思

—발표: 李幸玲(臺灣師範大學)

14:20~14:50 ○ 유가 ‘生死有定’의 善惡倫理와 禍福際遇의 의미분석

—발표: 金培懿(臺灣師範大學)

14:50~15:05

휴 식

15:05~15:35 ○ '人權 儒學', 21세기 동아시아학의 미래 방향

—발표: 신정근(성균관대학교)

15:35~16:05 ○ 『맹자』에서의 세 가지 도덕적 확장에 대하여

—발표: 김도일(성균관대학교)

16:05~16:35 ○ 유학과 21세기 중국의 제도창신

—발표: 송인재(한림대학교)

16:35~16:50

휴 식

▣ 종합토론 16:50~17:50

—좌장: 김성기(성균관대학교), 이용윤(성균관대학교)

▣ 폐 회 식 17:50~18:00

【 발표1 】

당대 신유가 唐君毅의 환경생태사상

潘朝陽(臺灣師範大學)

중국유가의 천인합일 사상은, 선진 유학에서부터 그 기본관념이 뚜렷했다. 공맹순의 원문에서 易傳, 禮記의 논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천지 속 모든 만물과의 조화융합 생명관을 분명하게 정한 것이다. 이러한 원시유가의 생태, 생명과 조화로운 천인합일 사상은 줄곧 중국유가의 중요한 신앙과 가치였다. 이 유가 신념과 실천 역시 중국 서민생활의 생태윤리가 되었다. 현대는 인간과 환경, 인간과 공간이 서로를 잃어버린 시대이다. 표층적인 원인은 과학기술주의나 과학一層論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중성이 환경과 공간에 행한 파괴와 소외이다. 심층적인 원인은 본래 심성의 天道와 人心은 하나라는 천인 예지를 잃어버린 까닭이다. 그러므로, 인간 본래의 道心을 다시 일깨우고 끌어올려야만 仁體仁心에 의해 천지 속 인간 본래의 천지만물과의 조화를 안정시킬 수 있다. 당대 신유가 唐君毅의 유가사상은 원시성의 유가 천인합일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유가의 천인합일적 사상맥락에 따라 唐君毅의 환경관과 공간관을 정리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주로 唐君毅의 『中國文化之精神價值』를 주축으로 해석할 것이다.

공자의 時中觀 해석에 대한 反思

——上博簡『詩論』을 중심으로

李幸玲(臺灣師範大學)

이 글은 공자 인학설(仁學說)의 충서지도(忠恕之道)의 강령을 근거로, 상박간(上博簡)의 『시론(詩論)』을 분석하여, 공자의 권변(權變)하며 중용(中庸)에 합한 시중관(時中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이 어떻게 적절한 ‘시(時)’, ‘중(中)’을 판단하며, 입사(入仕－행의行義)와 퇴은(退隱, 隱居) 등 조건에의 견지를 통해 자아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고 사회에 대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책임을 질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유가 ‘生死有定’의 善惡倫理와 禍福際遇의 의미분석 － 필기소설의 ‘天災人禍’형 이야기를 고찰의 핵심으로

金培懿(臺灣師範大學)

중국 역대 필기소설의 기록으로 보면, 인간세상의 대형재난 발생은 천재이든 인재이든 모두 ‘定數’이고, 신의 ‘罰惡’의 행동이며, 사전에 반드시 인간에게 경고된 것이다. 또한 큰 재해로 무수한 사상자를 내었다 하더라도, 하늘은 절대 무고한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재의 발생은 모두 하늘이 특정한 신을 속세에 보내어 처리하게 한 것이고, 특정한 사람과 일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벌이 분명한 이 ‘生死錄’은, 인간의 수명을 상세히 계산하는데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계통에 따라 만들어진다. 하나는, 善不善과 慶殃이며, 또 하나는 天定宿命이다. 만일 이 생사의 근거를 중국 역대 필기소설의 기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전자에서 끊임없이 후자로 발전되었다. 이 글은 중국 필기소설 속 ‘天災人禍’의 대형 사망사건을 통해 유가사상 속 도덕선악과 생사화복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어 道德神力難避宿對罪 관념이 생기게 되는 이유와 이 관념의 형성에 따라 중국인의 생사관 근거는 어떻게 ‘今生’의 시공개념을 초월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因緣不空生’, ‘死生前定’등의 사유에서, 유가의 생사관이 어떻게 불교의 업보관념으로 기울어져, 하늘과 사람을 탓하지 않는 ‘受了’의 죽음 철학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하고, 이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가 生死無常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人權 儒學', 21세기 동아시아학의 미래 방향

이 글은 21세기의 유학을 동아시아학의 성립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문(인권)은 양자를 연결시키는 공통분모이다. 인문(인권)을 매개로 유학과 동아시아학이 결합될 때 유학은 一國을 벗어나서 동아시아를 공동의 공간으로 창출하게 된다. 이로써 21세기에서 유학은 인문(인권) 유학이 되고 동아시아학은 지역학이 아니라 인문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儒學이 전근대에서 儒術, 聖學·道學, 中華學으로 쓰이는 궤적을 훑어보고 근현대에서 國學으로 쓰이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통상 儒學을 왕조 명칭과 연관시켜서 한의 훈고학, 송명의 성리학, 청의 고증학으로 명명하는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류는 儒學을 중국과 폐쇄적으로 연결시켜서 동아시아 맥락에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특정한 儒學이 태동한 시점을 기준으로 BC 6세기 체제, 960년 체제, 1644년 체제, 1894~1895년 체제, 21세기 신체제로 구분하고자 한다. 하나의 체제는 모두 지역(중심), 목표 과제, 학문 명칭, 비교 사항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우리가 21세기의 신체제에서 國學 유학이 아니라 인문(인권) 유학을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 國學 유학의 단계에서 한·중·일의 개별 국가는 자기 완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별 국가는 상호 경쟁적 대립적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서로 상대국의 서사에 개입할 수도 없다. 즉 연구자-학자가 모두 이해 상관자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의 국학의 완성은 경쟁 국가의 국학의 미완성을 전제로 삼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이 동아시아에 편재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은 인문학적 의미를 창출할 수 없는 불임의 동토이지만 정쟁의 활화산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權 담론에 기초를 둔 국학을 21세기의 신체제가 나아갈 길이라고 한다면 연구자-학자가 이데올로그이기를 자임하는 형국이 될 뿐이다.

『맹자』에서의 세 가지 도덕적 확장에 대하여

김도일(성균관대학교)

본고는 맹자의 확충(擴充)이 여러 다른 형태의 ‘윤리적 확장’ 개념들과 잘 구분되지 않음에 주목한다. 맹자의 확이충지(擴而充之) 혹은 확충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같은 윤리적 동기에 기반한 행위를 보다 많은 대상에게 발휘하여 나아가는 윤리적 확장의 일종이다. 그런데 맹자에서는 확충 외의 윤리적 확장 형태들도 발견된다. 우선 맹자는 임금의 모범적으로 효행을 함으로써 그에 본받아 좀 더 많은 백성들이 각자 효행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확충과는 다른 형태의 윤리적 확장이다. 또한 맹자는 혈연적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도 애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만일 그렇다면, 이 역시 또 다른 방식의 윤리적 확장이다. 본고는 이 세 다른 형태의 윤리적 확장을 구분해내고, 특히 세 번째 확장이 과연 맹자의 문맥에서 추출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

유학과 21세기 중국의 제도창신

송인재(한림대학교)

전근대 조선과 중국의 통치 이념의 근간이었던 유학은 근대 국가가 수립되면서 학문, 윤리의 영역으로 자신의 영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유학과 현실의 재회는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에 의해 촉발되었다. 90년대에 유행한 유교자본주의론이 그 표상인데, 일본과 몇몇 신흥강국의 경제성장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다름 아닌 유교에 있다는 것이 핵심논리였다. 뒤늦게 경제성장을 성취한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공자가 정부의 대외적 문화전략을 상징하는 기호로 등장했고 민간에서도 유교경전 읽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곳곳에서 유교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거리낌 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교의 부활국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도와 유학의 결합이다. 이때 경전읽기를 주도하는 이들은 유교의 본질이 윤리나 심성수양에 있지 않고 현실정치를 운용하고 제도를 창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유학 또는 제도유학으로 불리는 이러한 조류는 경향은 양명정사를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는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공자의 유학정신은 바른 정치를 실행하는 데 있었고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은 금문 공양학의 계보에 서 있는 Kang Yu-wei라고 주장한다. 정치유학은 중국모델론의 정치적 판본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상은 서구에서 고안된 정치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중국의 실정에 맞으면서 서구의 것보다 우월하여 보편성도 띠는 정치제도 수립을 희망한다. 정치유학의 실험에는 유학의 새로움, 동시에 새로운 정치, 더 나아가 새로운 중국과 세계를 모색하는 중국 지식인의 고민이 담겨있다.